

함께하는 인천지부 소식

소통과 단결로 다시 세우는 인천지부!

■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김현동 ■ 발행일: 2026년 3월 4일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PDS, 노동자 40명 임금·퇴직금 8억여 원 체불 위법행위 반드시 책임 물을것!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PDS가 노동자 40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 지원 요청해서 받으라"는 무책임한 태도

그동안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태훈)는 한국지엠 2차사내하청업체인 PDS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묵살당했다. 그런데 설 명절을 앞두고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PDS 측 관계자는 "1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받으라"며 대놓고 임금체불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원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임금을 체불하고, 뻔뻔스럽게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하청업체의 퇴직금 체불, 원청 한국지엠에도 책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PDS 이전 업체였던 '도원' 역시 퇴직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2차 하청업체의 잦은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1차 하청업체인 BTX나 원청인 한국지엠이 이를 지속적으로 방기해온 것이 문제다.

임금체불은 생존권 침해! 인천지부가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임금 지급 거부 행위는 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중대한 생존권 침해다. 이에 인천지부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원청인 한국지엠에게 'GM협력사 행동 강령'을 근거로 사업장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 ▲ 임금체불을 방기하며 오히려 체불업체에게 노무컨설팅격의 조언을 하는 노동부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체불임금 전액 지급,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극악무도한 하청, 뒷짐 진 원청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집단해고된 120명의 GM부품물류지회 동지들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 한 달여 시간 동안 철야농성과 대시민 선전전, 언론 대응, 정부 규탄 투쟁을 벌였다. 인천지부와 인천지부 산하 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도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투쟁에 줄곧 함께했다. 지난 2월 5일, 마침내 한국지엠이 백기를 들었다. 해고 노동자 전원 복귀와 체불임금 전액 지급이라는 값진 성과를 쟁취한 것이다. "뭉치면 산다"는 단결의 힘을 현장에서 증명해낸 투쟁이었다. 추운 겨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싸워 승리를 일궈낸 해고 동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나의 일처럼 달려와 끝까지 함께해 준 인천지부 조합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연대는 힘이었고, 단결은 승리였다.

[소식] 함께가는 지부-지회

02

현대중공업지부 현대건설기계 인천지회 방문

01

캐스코드 지회 간담회 및 현장순회 진행



[간략 지회 소개] 캐스코드지회(지회장 황정철)는 엔진주물을 만드는 업체로 현대건설기계 인천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과 기업노조 설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견고하게 조직을 지켜내고 있으며, 끝내 기업노조가 자진해산 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김현동 지부장 및 집행위원들은 캐스코드 지회 인천공장과 김포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캐스코드지회 황정철 지회장은 지회 현안을 상세히 공유하며, 2026년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과 조직강화를 위한 지회 사업에 지부가 함께 결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회 역시 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지부, 지회 참가자는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포공장에서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며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노조의 역할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펼쳤다.

이번 방문은 지회와 지부가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인천지부는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더 단단한 연대와 투쟁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2월 13일 인천지부는 현대중공업지부 현대건설기계인천지회(구 인천지부 HD현대인프라코어지회)를 방문해 신임 집행부(지회장 최수범)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대건설기계 인천지회는 작년까지 금속노조 인천지부 소속이었다. 소수노조로서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몇 년간 기업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현대건설기계와의 합병을 계기로 마침내 기업노조의 조직형태전환을 이뤄냈으며, 이후 현대중공업지부 현대건설기계 지회로 편제됐다. 금속노조로 통합 후 진행된 선거를 통해 14기 신임 임원이 당선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지역 투쟁 현안과 14기 인천지부 계획과 과제를 공유했다. 또 향후 공동사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 연대 강화와 현장 중심 활동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연대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새롭게 도약하는 현대건설기계인천지회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 현장을 기반으로 한 단단한 조직력과 연대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길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3/10 노조법 2·3조 시행! 실질적 원청교섭 쟁취해야!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 권한도 없는 하청업체 바지사장과 교섭해 왔다. 그러나 3월 10일부터는 다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투쟁끝에 노동법 개정을 쟁취했다. 개정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제 원청은 더 이상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개정 노조법 제2조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라고 본다."

최근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원청(한국지엠)을 상대로 교섭을 두 차례 요청했으며, 현대ISC(원청 : 현대제철)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쟁취 원년의 해로 삼고 실질적이고 제약없는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인천지부 역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해당 지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하며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